

## <신규여성실업 상반기 계획 Ver 1.0>

### 1. 여성 노동자들의 현재

-모든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은행 등퇴인원 최대 95%

실업률 고조 여성

여성실직가장

### 2. 대학 - 신규여성실업문제를 제기한다.

여성 실업자와 취업희망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기간은 길었으나 앞으로 예상하는 구직기간은 짧아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연구원은 「여성 실업자와 취업희망자의 구직행 위와 조건」 보고서에서 여성 실업자와 취업희망자 6백16명을 대상으로한 조사.분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학력별 구직기간은 중졸이하 2.7개월, 고졸 3.7개월, 전문대졸 이상 4. 5개월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근로조건이 높고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는 적어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 예상기간은 중졸이하 81.8%, 고졸 88.2%, 전문대졸이상 75%가 '일을 구할때까지'라고 답변, 전문대졸 이상이 구직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구직조건중에서 '직종 및 일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이 '임금'으로 나타났다. 또 20대는 직종 및 일의 내용, 30대는 근무시간대, 40대이후는 임금을 중요시해연령별로 구직조건에 차이를 드러냈다. 구직방법은 가족, 이웃, 친구에 의뢰하는 비공식적 방법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1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와 취업을 희망하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희망자'의 특성이 다르고 구직조건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취업희망자와 실업자에 대한 정책은 다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 실업자의 연령은 20~24세, 취업희망자는 30~34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실업자의 미혼비율(32.7%)이 취업희망자(14.7%) 보다 훨씬 더 높았다.

실업자는 근로조건중 직종을 가장 중요시한 반면 취업희망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중요시했다.

희망직종은 실업자는 전문직.사무직의 희망비율이 높았으나 취업희망자는 50%가 서비스판매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동아일보 1/12 '여성구직자, 학력 높을수록 구직 포기 많아'

(연합뉴스)

- 여성 신규 실업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점점 더 낮은 구직률을 나타내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섭되어 간다고 한다.
- 사회화된 가치기준, 다시말해 성적 불평 등을 너무나 빠르게 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다.
- 노동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취업을 분리시키면서 계속해서 대학생이라는 보호막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성에게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상가상의 현실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기에 신규여성 실업 문제를 통한 대학생의 허위의식을 깨뜨려야 한다.

### 3. 기조 및 목표

최대한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 낸다.  
인식하고 있는 성적 불평등, 현재 실업의 문제를  
행동으로 조직한다.  
평등적 노동권을 대중적 이데올로기화 한다.

- 단기적인 실업정책에 반대한다.

인턴사원제 폐지, 김대중의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신규 실업자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라.

- 일자리 창출만이 대안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여성직종 개발을 통해

-여성 노동운동의 대중적 세력화를 꾀한다.

여성신규실업 연대 또는 모임 구성을 통해 여성운동 단위의 인식전환을 꾀하고 조직  
화한다.

타 운동단위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대중적 확장을 꾀한다.

장기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인 실업운동을 조직한다.

-성적차이에 기반한 평등전략을 연구한다.

대중적 이데올로기

입직과정에 대한 차별 철폐운동, 정보공개 청구권 확보

#### 4. 핵심사업

#### 5. 시기별 계획

3월 - 단위 안착화 및 준비시기

4월 - 메이데이

5월 - 메이데이, 대중적 확산시기

Anti - 취업박람회

6월 - 인턴사원 반대 투쟁

#### 6. 운영 계획 (타 단위와의 관계까지)

1) 노동팀의 위상은 각 단위의 공통된 문제를 해소하면서 공동의 정책구상과 사업구상  
을 논의한다. 살맞의 노동팀은 기간의 구호 중심의 실업운동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계  
속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섭되고 있는 신규 여성실업자들을 조직화 할 과제가 부여  
된다. 또한 현재의 실업문제를 이슈화 시켜내고 부각시키기 위한 타 단위와의 적극적  
인 연대를 실현한다.

매주 세미나, 사업계획 구상( 타 단위의 제안까지 담보).

2) 살맞과는 이중테이블을 구상하며,

일단 첫 번째 논의와 결의 단위는 노동팀으로 한다. 그리고 이 후 살맞에서 논의되고  
소통되는 구조로 가져간다. 살맞 정기모임에서는 논의된 내용과 사업계획, 자보문안들  
을 항상 공유하고 집중해야 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노동팀 세미나 내용은 쟁점이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정기 모임에 제안해서 세미나  
를 진행한다. 이 후에 이 내용들을 살맞 소식지에 정리해서 실는 것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3) 청실모와의 관계

사안별로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 부위에 대한 개입과 인턴 사원 폐지 사  
업정도로 구상하고 있으며, 살맞 노동팀이름으로 정기적인 회의 속에서 실업운동을 확

장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하기에 청실모 정기회의에 참석하거나 연구소위에 참석하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

#### <<살맛 노동팀 운영계획>>

##### 1. 운영계획의 단상들

- 한주에 한 번 씩( 자보창고를 만든다) 자보내용을 돌아가면서 생산해 온다.
- 이벤트 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 청년 실업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금에 각개 약진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확장된 형태의 실업운동을 제안하고 우리또한 적극 연대한다.
- 각 개 팀의 보고는 보고서 형식으로 검토하면서 실험적인 좋은 것을 함께 한다.
- 주 모일 때 자료를 하나씩 주고 다음주에 반드시 세미나를 진행한다.

##### 7. 상반기 사업계획

###### 1월 계획

3월 2째주: 여노대련 해체에 부처 큐라를 만나서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 통신에 띄운다 (10일 전에)

- 상반기 사업계획 완료, 세미나 한달 내용 정리, (세미나와 동떨어지진 않겠지만)여성 노동계 이슈 정리와 대자보 꺼리 잡기까지

3월 3째주: 공개적인 모임 제안 (약 18일 경)

- 단위 확장 계획과 타 단위와의 적극적인 개입(만나보자), 청구 성심병원 투쟁의 결합 제안단위: 흥대, 아주대, 경희대, 중앙대 등 (관악, 고대?????)

3월 4째주: 상반기 사업 4월 사업제안과 공동투쟁 또는 세미나 제안 (단위 확장),

may-day 준비단

- 민우회 발족식과 공공부분 집회 공동 투쟁

4월 2째주: 대동계 사업준비

#### << 세미나 계획>>

##### 1) 무엇이 문제인가? - 정세분석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정리하기 위함의 목표지요

참고: 실업운동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프랑스 실업자 운동'

현재 여성운동 단위의 흐름과 독자 노조 건설에 관하여...

##### 2) 실업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일자리가 없다.

전반적인 실업의 문제에서 여성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들이 희생양이 다가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제기해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 99년 노동부 실업정책

##### 3) 성적 차이에 기반한 노동권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

##### 4) 입직과정의 차별

## 5) 고용창출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별첨 문서>

#### 민우회와 살맛의 관계

##### 1. 민우회의 신규여성실업자 모임의 단상

신규 실업모임을 제안을 받았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국승 21에 있는 독자적 청년실업자 모임과 같은 위상을 가진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졸, 대졸 여성 실업자와 실업운동을 고민하는 대중조직으로 생각했다. 실업운동을 하는 단위로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고 신규 실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중적인 이데올로기 작업을 펼치고

##### 2. 살맛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학생단위는 실제 사회로 진출할 잠정적인 대상으로서 민우회 신규 실업 모임의 활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규 여성실업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임을 해방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로서의 공신력을 우리에게 전략상 활용할 수는 있으나 민우회라는 이름을 걸고 움직여지면서 타 단위와의 연대에 대한 마인드도 학단위와 달리 "우리가 먼저 제기한다." 내지는 학단위에 대한 고민보다는 신규여성실업자를 조직하는 문제에 착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신규여성실업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사업이 빨리 도출되어야 하고, 감사를 내려오기도 한다. 하기에 처음에 생각했던 신규 여성실업모임의 위상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참가에도 별 의미가 없는 활동일 수 밖에 없다.